



제1차 자문위원회 개최

▶▶ 닭고기 업계 10대 현안과제 제시



본회는 지난 7월 15일 수의과학회관 5층 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본회는 이날 자문위원회에서 협회현황과 함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본회는 닭고기 업계의 현안과제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축산계열화사업법 제정 ▲외국인 고용허가 업종 추가변경 및 확대 ▲도계장·부화장·사료공장 등 주요 축산시설 반경 일정거리 이내에 가금육 사육제한 ▲축산물 검사원 제도의 활성화 ▲부화장 HACCP 인증 추진 ▲중량단위 가격 표시제도 마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개선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준 변경 ▲닭고기의 등급판정 기준 및 방법의 개선 등 10개항의 현안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병학 회장은 “10대 과제 중에는 이미 해결된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회원사들이 협력하여 해결할 과제들도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자문을 얻어 현안과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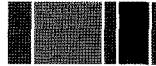
특히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련, “축산계열화사업법의 제정이 우리 닭고기 산업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계약사육농가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계열주체에게는 계열주체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계열화사업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계약사육농가와 계열주체는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자조금연구원 박영인 이사장은 이날 ‘육계 계열화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계열화사업의 일반배경과 계열화사업이 앞으로 추구해 나갈 방향 등을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또 현재 준비 중인 축산계열화사업법과 관련하여 “계열화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는 상호의존과 공정 계약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며 “사업주체인 쌍방은 계열화사업의 구체적인 기능분담과 권리, 의무사항 등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어진 ‘육계 계열화사업 및 정부의 축산계열화사업법’에 대한 참석자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노경상 위원(축산경제연구원장)은 “통합경영, 즉 계열화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표준계약서 등의 작성 및 발급과 관련하여 ‘위탁의 내용, 경비의 지급방법 외에도 사육형상계획, 방역계획 등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경상 위원은 “품질이 불량한 가축 또는 사료의 기준이 명시돼야 하며 가축의 흠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부에 검토의견 제출

본회는 지난 7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의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본회 의견을 지난 7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

본회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해당 가축 전염병의 전파기능성이 있는 가축, 사료·분뇨·동물약품·가축 등을 운반하는 축산관련 차량(이하 이 항에서 "차량"이라 한다), 수의사, 가축방역사, 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이하 이 항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병 전파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함 - 이를 추진할 대상·기관 등이 필요하고, 명확한 원칙을 수립하여 혼동할 우려를 불식 할 필요 있음 - 차량, 종사자의 귀책 사유가 아닐 시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검토 필요 - 행동 제약에 따른 사회적 활동 방해에 대한 명분이 없음 - 제재만 있고 보상안이 없음 - 육계의 경우 입주와 출하시점에 시간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시료급여가 하루만 늦어도 대량폐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출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목표한 중량을 맞추지 못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현재 가죽이 사용되는 장소 이외의 장소로 이동 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동중지 대상 차량 및 종사자는 가축사육시설이나 축산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3(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차량 등의 이동중지 등) ①—— 가축전염병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조2의 사유와 동일하며 법적인 제재는 논의되고 있으나, 오판 또는 잘못된 해석에 의한 피해 발생 시에 대한 방안이 없음 - 판단기준 모호하고 행동의 자유 억압에 따른 생계유지의 문제 발생 가능성 등

■ 삼계위원회 개최

▶▶ 비수기 수급조절에 대해 논의

본회는 지난 7월 19일 대전 유성 소재 한 음식점에서 삼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수기 닭고기 수급조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닭고기 수급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복이 지나고 난 후 하반기를 대비한 닭고기 수급조절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알림

▶▶ 회원사에 공문 발송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여행객 입국시 공항 및 항만에서의 신고 및 소독 대상 축산관계자에 대한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지난 7월 2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시행 내용에 따르면 가축전염병명 발생국가 출입국 시 신고대상자 확대,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 매몰지를 다른 용도로 허가할 때 사전 협의, 발굴금지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 생계안정비용 지급 대상에 가축을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 추가 등이다.

이에 본회는 회원사에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개정된 내용을 회원 농가 등에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930호, 2011. 7. 25)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협회 소식

나 본회 홈페이지(www.chicken.or.kr)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알림

▶▶ 회원사에 농가 교육 철저 당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보공개 대상인 가축전염병명, 정보공개의 범위 및 절차와 방법, 가축의 소유자 등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신고절차와 방법,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에 대한 질문·검사·소독에 관한 사항 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본회는 회원사에 공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신고절차와 방법 등 개정된 사항에 대해 회원 농가에 대한 교육 등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9호)은 본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다.

로 정할 것을 주문했다.

■ ‘퀴즈 풀고, 닭고기 선물세트 받자!’ 이벤트

▶▶ 오는 8월 16일까지 진행

본회에서 매월 발행하는 ‘월간 닭고기’가 지난 2011년 7월호로 창간 16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퀴즈 풀고, 닭고기 선물세트 받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응모기간은 오는 8월 16일까지로, 아래 문제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시면, 정답자 중 16분을 추첨하여 (주)하림·(주)마니카의 ‘닭고기 가공품 선물세트’를 제공한다. 당첨자는 오는 8월 말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 홈페이지 : www.chicken.or.kr

〈문제〉

“○○○○마크”는 국내산 닭고기와 외국산 닭고기의 차별화로 우리나라 닭고기 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국내산 닭고기와 외국산 닭고기의 차이점을 홍보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한국계육협회에서 제정한 마크입니다.

■ 제3차 편집위원회 개최

▶▶ 월간 닭고기 편집계획안 검토

본회는 지난 7월 5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3차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월간 닭고기 편집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여름철 보양식품의 대명사인 ‘삼계탕’을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8월호 특집으